

PEOPLE

2025년 9월 11일 목요일



광양상의·제주양돈농협

고향사랑기부금 교차기부

광양시는 제주양돈농협이 고향사랑기부금 교차기부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차 기부는 국제모타리 봉사활동을 계기로 인연을 맺은 우광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과 고권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의 뜻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해 두 사람은 각각 광양시와 제주시로 개인 최고액을 교차 기부했으며, 올해는 광양상의의 회원사와 제주양돈농협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우광일 광양상의의 회장은 “제주양돈농협과 광양상의의 회원사 임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과 임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금 교차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ikkjn@gwangnam.co.kr



정철원 담양군수

325개 마을 ‘군민과의 대화’

담양군이 3개월여 마을 곳곳을 돌며 진행한 ‘군민과의 대화’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10일 담양군에 따르면 정철원 군수는 민선 8기 첫 ‘군민과의 대화’를 지난 6월 9일 담양읍을 시작으로, 지난 5일 수북면 풍수리 등 325개 마을을 직접 돌며 진행했다.

이번 군민과의 대화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군민과의 약속’을 현장에서 실천한다’는 취지로, 군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설명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군민과 함께 논의해 해법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화는 마을별로 주민과 함께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군수가 직접 질의에 답변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부서장이 동행해 세부 대책을 설명했다.

정철원 군수는 “군민과의 대화는 군민의 삶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다”며 “앞으로도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현행행정으로 군민 중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성용 기자



사학연금, ‘빛가람 청렴문화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최근 열린 ‘제11회 빛가람 청렴문화제’에서 공단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10일 밝혔다.

빛가람 청렴문화제는 빛가람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광주·전남 지자체, 시민단체가 함께 구성한 ‘빛가람청렴실천네트워크’가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청렴 의식 확산과 부패 방지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며, 올해는 특히 ‘음주운전 예방 청렴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혔다.

사학연금은 행사 기간 △청렴챌린지 △익명신고 모의훈련 △고위직 청렴의식 선포 △청렴 대면교육 △청렴 홍보(카드뉴스 등) △청렴 통합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이숙자 광주중앙헤어스튜디오 대표, 국무총리 표창

“후배 미용인들과 함께 ‘K-뷰티’ 발전 노력할 것”

45년 미용 외길… 전문인 양성·재능봉사 등 앞장
고용부·산인공, ‘숙련기술인의 날’ 행사서 수상

45년 동안 미용분야에 종사해온 미용인이 지역에서 흔히 앓은 ‘우수 숙련 기술자’ 선정에 이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받았다.

1980년대부터 미용산업 현장에서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미용 전문인 양성은 물론이고, 진로지도 및 심사위원, 재능봉사활동 등 저변확대에 힘을 쏟아온 동구 수기동 소재 중앙헤어스튜디오의 이숙자 대표(전 한국 미용장협회 부회장)가 지난 9일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2025년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숙자 대표는 1983년부터 미용인으로 입문, 기능경기대회 금상 수상을 시작으로, 신기술 향상에 노력하며 미용학과가 다른 학과보다 늦게 개설되면서 늦에는 미용실에 근무하고 밤에 미용대학 공부를 하는 등 만학도로서 관련 공부에 정진해 미용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다. 또 미용고객기술 서비스 및 미용인 인재양성에도 힘써 왔으며, 아이디어 특허와 디자인 등록 등 다수의 미용 논문 및 기술 서적을 집필하면서 전문성을 입증해왔다.

아울러 기능경기대회 기술 전수 및 청소년취업, 창업, 진로지도, 현장 적응 직무 교육, 도제교육 등 후학 양성에 헌신하며, 소상공인의 기술 향상과 매출 증대 노후우 전수로 지역 발전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평생 동안 재능기부 사회봉사 활동을 이어오며 미용인의 사명감으로 책임을 실천해 왔다. 이처럼 미용분야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온 가운데 그가 획득한 미용 기능장을 비롯해 앞서 언급한 미용학 박사, 우수숙련 기술자, 광주시 미용 명장 등 다방면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수상소감을 통해 “이번 표창은 제 개인의 상이 아닌 가족, 사업장을 비롯 미용산업 전체에 주어진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후배들과 함께 K-뷰티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2020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우수숙련기술자로서 선정된 바 있다. 현재 대한미용사회 기술강사를 맡고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45년 동안 미용분야에 종사해온 미용인 이숙자 중앙헤어스튜디오 대표가 ‘우수 숙련 기술자’ 선정에 이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광주 퍼스트이비인후과, 수면의학 ‘최고 병원’ 도약

이창준 원장, CCSH 등 국제공인 수면의학 자격 3종 취득

광주 퍼스트이비인후과가 진단부터 상담, 치료까지 원스톱 체계를 갖추며 수면의학 분야 최고 병원으로 입지를 굳혀 나가고 있다.

10일 퍼스트이비인후과에 따르면 최근 이창준 원장(사진)이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CCSH (Certification in Clinical Sleep Health·임상 수면건강 전문가) 자격을 새로 취득했다.

이 원장은 기존 보유하고 있던 ESRs (유럽수면 연구회) 수면전문, RPSGT (국제공인수면다원검사 전문가)와 함께 CCSH를 획득하면서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3대 핵심 수면의학 자격’을 모두 보유한 의료진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번 CCSH 취득은 단순한 자격 보유를 넘어 지역사회와 국내 수면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CCSH가 미국 BRPT (Board of Registered Polysomnographic Technologists)에서 인증하는 자격이기 때문이다.

단순 검사 능력뿐만 아니라 환자 상담, 교육, 맞춤형 치료 계획 수립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는 의미로, 환자의 상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생활 습관 교정, 심리적 지원, 장기적 관리까지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적 진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다.

이 원장은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불면증은 단순 불면이 아닌 심혈관질환, 당뇨, 우울증 등 전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이다”며 “정확한 진단과 맞춤 치료, 지속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퍼스트이비인후과는 현재 수면다원검사 (PSG), 양압기 치료, 비수술적 코골이 치료, 생활 습관 교정 상담 등 수면 관련 전 과정을 한국에서 진행할 수 있는 종합 수면 클리닉을 운영 중이다. 이번 CCSH 자격 취득으로 상담과 교육 역량이 강화되면서 진단, 치료, 상담·교육, 장기 관리로 이어지는 원스톱 수면 의료시스템이 한층 더 공고해졌다.

이신하 기자 goback@

광산구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개선 모색

광산 경찰·녹색어머니회 합동 캠페인도

광주 광산구가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까 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광산구 내 초등학교 (44개소), 대안 및 특수학교 (2개소), 유치원 (8개소) 등 총 54개소다. 실태조사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로 목적으로 추진됐다.

광산구는 교통사고 발생 빈도, 차량 통행량, 주차장 실태 등 현황을 분석 조사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의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고, 문제점이나 개선 필요성 등을 진단한다.



광산구는 실태조사로 얻은 현황 데이터를 활용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운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실태조사에 앞서 광산구는 개학을 맞아 10일 광산경찰서, 광산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선운초등학교, 성덕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다.

임정호 기자



광주시는 10일 대구 일원에서 광주·대구지역 자원봉사자 및 관계자 90명 (각 45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봉사 달빛동맹 교류행사’를 개최했다.

13년 이어온 달빛동맹, 자원봉사 교류 빛났다

광주·대구 자원봉사자 90명, 재난대응·문화탐방 교류행사

광주시는 10일 대구 일원에서 광주·대구지역 자원봉사자 및 관계자 90명 (각 45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봉사 달빛동맹 교류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이 행사는 광주시자원봉사센터와 대구시자원봉사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영·호남 간 자원봉사 문화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고 두 도시 간 지속적인 우정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광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7월 광주지역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참여한 대구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감사와 연대의 마음을 담아 피해농가에서 구매한 농산물을 선물로 전달했다.

이번 교류행사는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생존 배낭 꾸리기’ 체험, 대구 북성로 문화탐방,

지역별 자원봉사 우수사례 공유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이번 교류행사가 광주와 대구 간 협력 정신을 상징하는 ‘달빛동맹’의 가치를 되새기고, 자원봉사 분야의 지속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13년간 변함없이 교류를 이어온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광주를 돕기 위해 달려와 준 대구 자원봉사자들의 연대에 깊이 감동했다”며 “광주와 대구는 ‘달빛동맹’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다시 세상 밖으로 꺼내기 위해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화합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최근 서울 양재동 A 테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사회서비스 박람회’에서 ‘사회서비스 활성화’ 유공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광주사회서비스원, 복지부장관상 ‘3관왕’

사회서비스 활성화 유공 부문

광주사회서비스원 (원장 김대삼)은 9일부터 이틀간 서울 양재동 A 테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사회서비스 박람회’에서 ‘사회서비스 활성화’ 유공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 23가구 66명에게 긴급돌봄 서비스를 873회 2704시간 제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직영시설인 안심돌봄센터와 긴밀히 협력, 심리·정서 지원과 생활 지원 등

맞춤형 긴급돌봄을 신속히 제공해 유가족들의 생활과 정서를 안정시키는 데 일조했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은 ‘2025 시도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 우수 기관’과 ‘운영 지원 유공자’ 부문에서도 장관상을 수상하며, 같은 날 세 부문에서 영예를 안았다.

김대삼 원장은 “이번 복지부장관상 3관왕 달성은 광주사회서비스원과 현장의 모든 종사자들이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삶을 지키고자 헌신한 결과”며 “앞으로도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트렌드를 이끌며, 시민 곁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서구, 동 맞춤형복지팀 역량강화 교육 광주 서구 (구청장 김이강)는 10일 서구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에서 복지철학 공유 및 복지마인드 함양,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강화 등의 교육 내용으로 동 맞춤형복지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제공=광주시 서구